

지역 매 아리

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전'

유기상 고창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14일 국회를 찾아 유성엽·정운천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유 군수는 특히 수돗물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노동권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창 지구 배수개선사업,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 감사센터 설치 등 신규사업의 추가 지원과 계속사업인 생활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 강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의 시급성을 설명했으며, 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동화농민회협의체 출범 계승과 발전을 위한 파랑새공원조성사업과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동호어촌뉴딜 300사업의 선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며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유기상 군수는 "군민의 삶과 지역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국가예산확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본격

부안군의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남)를 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부안군의회 행감특위는 부안군의회 3층에 감사장을 열고 오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재점검해 잘못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정책 집행 되도록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해 부안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를 맞아 군민의 관심이 무척 높은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민선 7기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중간 점검하고 소관부서별 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점은 청산·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농촌영화제 전국 최초로 고창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 일원서 영화 '파밍 보이즈' 등 10여 편의 농촌 테마 영화 상영

농촌을 테마로 한 '농촌영화제'가 전국 최초로 고창에서 열린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에서 '제1회 고창 농촌영화제'를 열기로 하고 그동안 다양한 계획을 준비해 왔다.

군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접목하여 새로운 농·생명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상생하는 농업·농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농촌영화제는 첫 날인 22일에는 영화제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한 주요 내빈과 영화 관계자들의 무대인사와 함께 세 청년들의 무일푼 농업 세계일주 도전기 '파밍 보이즈(감독 변식연, 장세정, 강호준)'가 개막작으로 선보이며 '메밀꽃, 운수좋은날, 그리고 봄봄

(감독 안재훈, 한혜진)', '늑대아이(감독 호소만 마모루)', '짱은 내 친구(감독 마에다 테츠)', '100억의 식탁(감독 발렌틴 투른)', '카모메식당(감독 오기카미 나오코)' 등 엄선한 10여편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가 3일간 상영된다.

아울러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공모한 농업·농촌 29초 영화제에서 수상한 여러 편의 영화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화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고창의 다양한 농·특산물들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와 영화 배우 출연과 뮤지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유기상 군수는 "농업과 농촌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촌영화제'는 생물관보전지역 고창의 깨끗한 자연생태환경과 어우러져 편안한 휴식과 정서적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고창=김영식기자



며 "농업생명식품산업 수도 고창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가을바람을 벗 삼아 자연을 만끽하고 함께 키워가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보건소 작업치료사가 출동합니다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큰 호응 얻어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14일까지 재가장애인 19세대를 대상으로 4분기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를 서비스를 실시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거동불능과 거동불편 등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장애인으로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장애인 세대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신청 장애인세대를 재활사업의 전문인력인 작업치료사가 방문하여 욕창상대 확인과 관절과 근육운동 등의 재활관리 운동을 돕고,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기압치료가, 저주와 자극기를 이용하여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작업치료사 1명과 신태인 화호진료



정읍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 정우보건지소, 수성동 등 해당보건지소, 진료소, 동지역방문 간호사 등 11명의 지역담당자와 함께 2018년 3월부터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방문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서비스는 신태인읍과 정우면을 비롯한 7개 읍면동, 19명의 희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초고령화와 독거·장애인 세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의 제공횟수를 늘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활서비스와 병행가능한 정서치료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심심통합재활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겨울철 설해대책 사전대비 총력

제설장비·자재 등 사전 확보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본격적인 설해대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설해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제설장비와 자재 등을 사전 확보하여 위안국·지방도 노선을 포함한 관내 63개 노선 408km구간에 대해 설해대책 추진에 완벽을 기하고, 취약구간인 과교인체교 등 주요요목 5개소와 추령재를 비롯한 고갯길 8개소에 대하여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예찰활동과 제설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비상근무조 2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10cm 이상 적설시 시청 전 직원이 비상체계에 들어가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서도록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 및 퇴근 시간대의 기습 폭설에 대비하여 SMS를 활용하여 비상연락체

를 유지하고 사전비상 근무 예고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염화칼슘 및 소금 등 비축자재도 약 30일분을 확보하고, 모래주머니 20,000개, 제설함 50개도 시가지 주요요목 및 터널, 교량 등 취약지역에 이달 15일까지 배치완료 할 계획이다. 제설 취약지구인 칠보 구절재와 내장 방산계, 신태인읍에 있는 전진기지에 있는 염화칼슘 저장탱크에 염화칼슘 용액 20톤을 이달 25일까지 전진배치 할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제설작업의 시스템화와 유관기관·민간자원봉사자 공모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민간업체와 장비를 임대계약(15톤덤프 8대)하여 취약 구간인 추령재, 구절재 등 일정 구간을 민간위탁 용역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지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35대를 보급하고 유류대를 지원하며 제설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체계 구축

부안군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대응기간'에 돌입해 폭설 대비에 나섰다.

부안군은 겨울철 대책기간인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폭설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및 한파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장비 확보는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또 제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업체는 물론 마을제설반 등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군·경찰, 학교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부안군은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 대책기간의 재난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4일 개최했다.

최낙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정읍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행복시대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희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 단풍미인배 중등부 스포츠부 축구대회 유치로 동절기에 약 3천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함으로써 정읍이 사계절 관광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3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전심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2018년 제2회 추경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감싸움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